

## ■ 주요 기사

### ○ 현대차, 해고 근로자와 노사협상 관련 (3건)

조선	<a href="#">현대차, 해고한 직원과 내년 생산량 협의해야</a>
동아	<a href="#">현대차, 해고자와 공장가동 협상할 판</a>
매경	<a href="#">현대차 '황당하네'...해고자와 車생산량 협의해야 하나</a>

### ○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(2건)

동아	<a href="#">50대 이상 취업자, 사상 첫 1000만명 돌파</a>
한겨레	<a href="#">50대 이상 취업자 1000만명 넘본다</a>

### ○ 원청의 파견노동자 차별 책임 관련 판결 (1건)

한겨레	<a href="#">[단독] 법원 "파견노동자 차별, 원청업체도 책임져야" 첫 판결</a>
-----	---

### ○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지연 관련 책임론 (1건)

한경	<a href="#">환경부의 과잉대응...진전 없는 폭스바겐 리콜</a>
----	---

## ■ 주요 칼럼 · 사실

### ○ 통상임금 판결 논란 관련 (1건)

동아	<a href="#">[동아광장/박지순]통상임금,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</a>
----	--

### ○ 산업안전 관련 (1건)

매경	<a href="#">[기고] 산업안전의 '안나 카레니나 법칙'</a>
----	---

### ○ 기후변화 협약의 트럼프 쇼크 관련 (1건)

매경	<a href="#">[세상읽기] '트럼프 쇼크'와 '반기문 레거시'</a>
----	--

### ○ 철도노조 파업 관련 (1건)

경향	<a href="#">[기고]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</a>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■ 언론별 동향

매체명	주 제	내 용	
조선	노동	제목	<a href="#">현대차, 해고한 직원과 내년 생산량 협의해야</a> B6면
		내용	현대차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 시킨 이유로 2014년 1월 현대차에서 해고된 박모씨가 울산1공장 대표로 당선
동아	노동	제목	<a href="#">현대차, 해고자와 공장가동 협상할 판</a> A12면
		내용	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(현대차노조)에서 해고자가 울산1공장 대표로 선출돼 논란. 현대차로서는 해고된 근로자와 공장 운영과 시설 투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
	제목	<a href="#">[동아광장/박지순]통상임금,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</a> A30면	
	내용	3년 전 통상임금 논란 불식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급심에서는 일관성 없는 판결로... 노사협상 지연 등 부작용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	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50대 이상 취업자, 사상 첫 1000만명 돌파</a> B1면
		내용	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(4~6월) 5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2000명 늘어난 1008만1000명으로 집계. 분기 기준으로 50대 이상 취업자가 천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
매경	노동	제목	<a href="#">현대차 '황당하네'...해고자와 車생산량 협의해야 하나</a> A1면
		내용	현대자동차가 내년도 자동차 생산량 협의 등 노사협상을 해고된 직원과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함.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개별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조합원 신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
		제목	<a href="#">[기고] 산업안전의 '안나 카레니나 법칙'</a> (권혁면 연세대 연구교수) A37면
	내용	기업의 사업주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보건 수준을 모기업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되는 세상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음	
	환경	제목	<a href="#">충북 진천에 친환경 에너지타운</a> A22면
		내용	미래부는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간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이날 총 7만2000㎡ 규모로 준공. 하수처리장 등 기피 시설 용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·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
제목		<a href="#">[세상읽기] '트럼프 쇼크'와 '반기문 레거시'</a> (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) A38면	
내용	트럼프의 위세는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한풀 꺾이고 맘. 파리협정을 지키려는 반기문 총장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대한 국제적 결속력이 확인됐고 특히 중국이 앞장섰기 때문		

매체명	주 제	내 용	
한경	노동	제목	<a href="#">"근무 중 산재 후 극단적 선택...업무상 재해 인정 못받는다"</a> 31면
		내용	근무 중 손을 크게 다쳐 극심한 통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
한경	환경	제목	<a href="#">환경부의 과잉대응...진전 없는 폭스바겐 리콜</a> 15면
		내용	지난해 9월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의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을 밝혀낸 뒤 폭스바겐은 각국에서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을 하고 있다. 대상 차종 1100만여대 가운데 75%인 850만여대의 리콜이 진행 중이다. 그러나 한국에선 아직 한 대도 결함을 고치지 못했다
한겨레	노동	제목	<a href="#">[단독] 법원 "파견노동자 차별, 원청업체도 책임져야" 첫 판결</a> 13면
		내용	서울행정법원 행정1부(재판장 김용철)는 원청업체 모베이스와 위드인 등 파견업체 2곳이 중앙노동위원회(중노위)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"파견노동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해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"며 판결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출산휴가·육아휴직 못쓰는 이유 물었더니...10명중 3명 '경제적 부담 탓'</a> 12면
		내용	21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전국 19~59살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, 국민의 74.2%가 정부의 일·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. 일·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, 유연근무제, 보육지원 등이 해당
한겨레		제목	<a href="#">50대 이상 취업자 1000만명 넘본다</a> 17면
		내용	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, 올 3분기(4~6월)에 50대 이상 취업자(계절조정 기준)는 지난해 말(965만5천명)보다 32만8천명 늘어난 998만3천명. 사상 처음으로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시점이 임박한 것
경향	노동	제목	<a href="#">[기고]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</a> 29면
		내용	김성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늘 그렇듯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고, 사측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<끝>